
 인천광역시		보 도 자 료		
		배포일자	2023년 7월 7일(금) 총 6매	
담당 부서	관광마이스과	담당자	• 관광마케팅담당	박은희 ☎440-4001
	공보담당관실		• 담당자	오진미 ☎440-4003
			• 담당자	김미현 ☎440-3075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 들어온다, 노 저어라 ... 인천시, 외래관광객 유치 총력
 - 전략 시장별 차별화 마케팅 구사해 인천 경쟁력 강화 -
 - 해외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 대폭 개선 ...지역소비 활성화 기여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와 인천관광공사(사장 백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국제관광수요 선점에 나선다.

올해 1분기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약 171만 명)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분기(384만 명) 대비 44.6% 수준을 기록한 데 이어, 5월에는 지난해 동기(17만5922명) 대비 392.9%가 증가(86만7130명)하는 등 국제 관광시장이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국제관광 완전 회복에 대비해 전략 시장별 홍보·마케팅을 차별화하고 K컬처와 연계한 인천만의 관광 콘텐츠로 외래관광객을 선점해 ‘방인관광의 봄’을 일으킨다는 것이 인천시의 전략이다.

‘모든 길은 인천으로 통한다(All Ways INCHEON)’는 인천의 도시 브랜드를 관광 마케팅에도 적용해 ‘세계인이 만나는 곳, 과거와 현재

가 있는 곳’ 인천을 시작으로 한국을 경험하라는 자긍심을 담은 전략이다.

태국·베트남서 인천관광 단독 로드쇼 성료

시는 지난 5월 18일부터 24일까지 태국과 베트남에서 인천관광 단독 로드쇼를 개최했다.

방인관광의 가장 큰 시장인 중국 단체관광이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동남아 시장의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잠재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태국은 코로나 이전인 2019년은 물론 현재까지도 동남아시아 주요 방한시장으로, 한국 문화체육관광부와 태국 관광체육부는 한태수교 65주년이 되는 2023년과 2024년을 한태상호방문의 해로 정하고 관광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한 바 있어 향후 더 큰 성장이 기대되는 시장이다.

태국 방콕과 베트남 호치민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인천관광 단독 로드쇼에서는 1883 인천맥강파티, 인천펜타포트락페스티벌, INK콘서트 등 인천 대표축제 비롯해 관광·마이스·의료 등 인천의 우수한 문화자원과 관광 여건을 적극 홍보했다.

로드쇼를 통해 21개의 인천관광기업과 60여 개의 현지 바이어가 300여 건이 넘는 상담 실적을 기록했으며, 이 밖에도 2천여 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한류 콘텐츠를 활용한 포토존·K-POP 공연 등 홍보 이벤트

를 진행해 잠재 관광수요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다.

이번 단독 로드쇼의 성과는 지난 6월 ‘1883 인천맥강파티’로 이어졌다. 코로나 엔데믹 이후 최초로 진행된 대규모 축제에는 태국·베트남·대만·홍콩 등 3천여 명의 글로벌 관광객이 한 자리에 모였으며 이들이 숙박, 식사, 관광지 등 인천지역에 직접적으로 소비한 금액은 약 5억 원에 이른다.

전략시장별 차별화 마케팅 펼쳐

방인 단체관광객 기획유치의 핵심이었던 중국시장은 소규모 및 개별관광객 모객을 위한 온·오프라인 마케팅 활동을 벌이는 동시에 주요 여행사 및 선사 등을 대상으로 세일즈콜과 관광설명회를 추진해 항공과 카페리 등을 이용한 단체관광객 유치를 대비할 계획이다.

방인 관광객 수요 회복의 주요 시장으로 대두된 대만시장은 TV 여행 프로그램 연계 제작된 방송을 송출하고, 11월 개최되는 타이베이 국제 여전을 통해 여행사별 세일즈콜 및 인천관광설명회를 추진해 대만 관광객들의 발길을 지속적으로 인천으로 이끌어 낼 예정이다.

장기 체류형 구미주 관광객은 올드&뉴 건축투어(개항장, 송도), 평화루트 투어(월미도, 강화도)등 특수목적관광(SIT)상품을 적극 마케팅하며, 동남아 관광객의 수요 선점을 위해 현지 주요 박람회 등에 꾸준히 참가하여 인천 인프라를 활용한 특색있는 코스를 발굴·소개할 계획이다.

무비자 입국허용과 항공편 증편으로 방한 외래관광객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일본에 대해서는 인천만의 특색 있는 수학여행 코스를 개발해 우호도시를 중심으로 청소년 교육여행을 집중 마케팅하며, 일본 최대 여행박람회인 투어리즘 엑스포 재팬 2023(10월)에 참가해 관광설명회 및 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또한 항공사 및 일본 온라인여행사와의 협업을 통해 꾸준히 증가하는 개별여행객(FIT)에 대해서도 대응·지원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전 세계를 대상으로 영향력을 확대해 가고 있는 K-컬처 중심의 한류 열풍을 활용해 펜타포트락페스티벌(8월), 한국 대표 K-POP 콘서트인 INK 콘서트(9월), 개항장 문화재야행(8월, 10월) 등 인천 대표축제 및 메가이벤트와 연계한 특화상품을 개발하고 지속적인 프로모션을 추진한다.

해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 대폭 개선 ...지역소비 활성화 기여

한편 해외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도 대폭 개선해 지역 소비 활성화에도 기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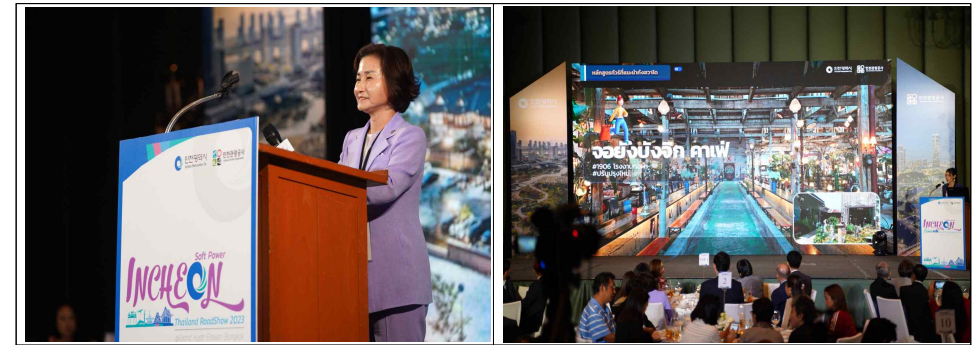
기존의 당일 상품 지원제도를 폐지하고 숙박상품 중심의 지원제도 운영을 통해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을 유도하고 지원 그룹의 최소 인정인원을 5인에서 8인 이상으로 조정한다.

가능한 많은 관광객이 인천 유료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인천에 오래 머물도록 하면서 관광객의 인천지역 내 소비를 늘리겠다는 전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밖에도 여행사별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신규·주력 관광지 위주의 상품 코스를 제안해 양질의 상품개발을 유도하며, 지난 3년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해외파트너도 재정비한다.

업체 전문성, 상품경쟁력, 마케팅 역량 및 사업수행 능력을 고려해 새롭게 선정한 126개의 해외파트너에게는 모객 실적과 개발상품 수, 숙박일 수를 고려해 지원금을 차등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김충진 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방한 외국인 관광객 수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의 외래관광객 수요 선점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 라면서 “전략시장별 다각적인 마케팅을 통해 인천의 관광 매력과 글로벌 경쟁력을 속도감 있게 높여 나갈 계획” 이라고 말했다.



태국 인천관광 단독 로드쇼



1883 인천맥강파티